

광주·전남 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진보교육감 뜻 모아 대입제도 개선”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3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대입제도를 개선시키는 일”이라며 “광주교육과 대입제도 일치를 위해 함께 당선된 14명의 진보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을 설득해 관철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공부 안시키다 우려 이해하지만 경쟁교육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복한 수학여행 추진하겠다

장 교육감은 선거기간에 쏟아진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것 아니냐, 초등생들 정기 시험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 우려에 대해 “학부모님들 걱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주교육이 주입식, 암기식, 입시경쟁식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일문 일답.

—선거결과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교육감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거가 어려웠다. 60% 이상 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간의 광주교육에 대한 평가가 나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해준 38%의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지난 8년 동안 진보 혁신교육, 나름대로 해보려한 참교육 실천 의지를 좋게 봐주셨고 여전히 응원해주고 계신다고 느낀다.

특히 다른 두 분 후보자(이정선·최영태) 모두 혁신교육감, 진보교육감이 되었다고 자처하셨다. 그럴 정도로 제가 추진해온 혁신교육, 진보교육의 방향은 옳았다고 감히 자신한다. 한 번 더 기회 준 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하겠다.

—선거기간 학생들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선거기간 시민들을 만나보니 ‘광주교육이 방향은 맞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나,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상당했다. 그런 우려를 십분 이해한다. 학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선 다음날 기자회견회에서 ‘초등생 학부모들께서 성적표를 받아보고 내 아이가 잘 따라가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걸 느꼈다’고 언급했는데.
▲초등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단원평가, 과정평가로 바꾼데 대해 학부모님들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생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단원평가,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한 것은 저희가(광주시교육청이) 먼저 시작하고, 이후 타 시도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학부모님들 우

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입제도가 개선되면 사교육비 감소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신이란 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고교 ‘수학 귀신’들이 어디로 가나? 의대 치대 약대로 간다. 그런데 대학가면 수학 공부 더 하나? 아니다. 의대, 치대 희망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교육력 낭비다. 차라리 생화학이나 해부학을 미리 배우는 게 낫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고교에서 소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길러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필요 이상의 고난도 수학문제 풀이보다 인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학생 개인이나,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나은 게 아닌가.

—고권침해 등의 이유로 ‘교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사명감 가지고 교직으로 오셨으니 우리 아이들 변화를 바라보면서 보람을 찾고 함께 아이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그러나 사실, 힘들다는 것은 옛날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는 교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거친 언어, 부적절한 지도용어에 대해선 아이들의 거부, 저항, 이의 제기가 뒤따른다. 이는 교직뿐 아니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어닥친 사회적, 시대적 분위기다.

—이번 선거에서 통일교육 특히 수학여행 등 남북청소년교류 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학생이 가기는 어렵다. (웃음) 길이 열린다면 희망학생을 모으고 각 고교에 권장해 희망자 우선으로 보내고 싶다. 이후로는 중학교로 권장하며 길을 넓혀겠다. 정부 당국에 적극 요청하고 있고 광주 민간단체와도 협의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북녘에서 광주를 특별하고 다정하게 느낀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

—8년 전 취임 직후엔 ‘주인이 아니라 머슴처럼 일한다’는 호평이 많았다. 3선에 들어가는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
▲여전히 그렇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머슴처럼 일할 각오다. 여전히 머슴이고 주인은 더더욱 아니다. (웃음)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변치 않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업자 낀 쪽지예산 관행 뿌리 뽑겠다”

■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당선인 자신은 물론 전남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핵심역량이 길러지고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청의 모든 역량은 학교와 교실, 교사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집중돼야 하고, 이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릇된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 구체적 예로, 장 당선인은 지난 21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을 앞세워 교직원들을 힘있게 하는, 뒤에는 업자들이 숨어있는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 인사에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패밀리그룹들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서면인터뷰로 보완했다. 다음은 장 당선인과 일문 일답.



교사·학생 성장에 역량 집중 투명·예측 가능한 인사 최선 여성 간부 50% 임기내 가능

▲교실의 변화다. 교실에 전남교육의 미래가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 개혁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업 혁신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이 길러지고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와 실적 보여주지 못, 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실 개혁, 교실혁명이 필요하다.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부끄럽게도 전남교육청은 내부청렴도 최하위다. 정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한다. 정발 개혁적이고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중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발탁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사에 있어서 패밀리그룹들이 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뿌리 뽑겠다. 각종 비리 및 갑질 문화에 해당하는 사람은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육행정 문화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인사원칙이나 인재등용 원칙은?
▲일단 인사는 시스템으로 한다. 본보기식 인사, 감정적 인사는 없다. 선거기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 오는 7월 1일자 관리직(행정직) 인사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3~4일쯤 늦추도록 요청했다. 인사를 통해 세신 의지를 표명하려고 한다. 6급 이하의 예정대로 시스템 인사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고), 사무관 이상은 제 뜻이 반영되도록 늦춰달라고 했다. 취임하고 결재하겠다는 취지다. 7월 3, 4일쯤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감 1호 업무지시는 뭘까.
▲여러 차례 공문한대로 1호 업무지시는 전남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될 것이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출발점을 든든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취임 후 방문지는 어디로 계획 중인가
▲취임 첫날 작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특성을 통해서 찾아오는 학교로 탐바꿈하고 있는 전남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인 무안 청계남초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이 학교가 급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약 일부는 파격적이고 참신하지만, 무리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감 집무실을 5층에서 1층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의 경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층 공간이 충분치 않고 실무적으

로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 다만, 1주일에 하루쯤, 몇 시간을 들여 1층에서 업무를 보며 직원, 민원인과 소통하겠다. 교육청 간부공무원 50% 여성화정책의 경우, 장학사 등 전문직은 당장 내년 중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직은 워낙 (대상자) 수가 적어 당장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4년) 가능하다.

—전남 초중고 1709곳→887곳으로 줄었다. 3년내 20개교가 추가 폐교될 전망이다. 폐교를 막을 방법이 있다.
▲그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학교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노력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미래형 지역공동체 학교, 즉 전남형 미래학교 프로젝트이다. 작은 학교들을 지역의 교육, 문화, 건강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의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또한 시범실시 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이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고 모델이 구축되면 교육부로부터 특별사업교부금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작은 학교가 가진 특성화된 교육 강점을 살려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최초 교육감이자. 전교조를 위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정부 소관이라 한계가 있다. 교육감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한 전교조를 둘러싼 현실은 정치영역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고 이 경우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전교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를테면 참교육 실현, 혁신교육 확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겠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전남교육가족에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교원과 행정직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전남교육청처럼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보인 곳이 없었다. 당연히 교육계 내 기록권이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많은 교육가족의 바람과 응원을 항상 생각하겠다. 촛불혁명 시대, 전남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열망들이 모이고 실현돼 (제가)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사회진영, 30~40대, 50대 초반 학부모들로부터 전남교육을 바꿀달라는 기대를 받고 선택했다는 점을 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빼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